

동사 Bake의 논리적 다의성과 어휘 의미구조

김 경 학
(수원대학교)

Kim, Kyoung-Hark. (2004). The logical polysemy of the verb 'bake' and the lexical semantic structures. *Language Research* 40(3), 573-595.

This paper deals with the logical polysemy of the verb 'bake' and the lexical semantic structures in terms of Pustejovsky's (2000) binary opposition and event structures. The verb 'bake' can show not only the meaning of the change of state but also the meaning of creation. However, in the meaning of the change of state, it has been known to show the telicity variability. In order to explain this kind of telicity variability systematically, I will discuss Pustejovsky's (1995) Generative Lexicon Theory and the co-composition generative mechanism in section 2. In section 3. I will discuss Hay, Kennedy and Levin's (1999) telicity variability and Lee Chung-min's (2000) modified extended lexical semantic structure. In section 4. I will introduce Pustejovsky's (2000) event structures and the semantics of opposition, then modify the lexical semantic structures a little. And I will argue that the modified lexical semantic structures can explain the logical polysemy of the verb 'bake' including the telicity variability efficiently.

Key words: activity verb, creation verb, telicity, event persistence structure, binary opposition, event structure

1. 서론

동사 bake는 다음 (1a)와 같이 자연물인 potato와 같이 쓰이면 감자가 구워지는 상태변화의 의미인 행위동사(activity verb)로 쓰이고, (1b)처럼 인공물 cake과 같이 쓰이면 없었던 cake을 만들어낸 창조동사(creation verb)의 의미인 완성동사(accomplishment verb)로 쓰이는 다의성을 보인다. 상태변화 동사로 쓰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2a)처럼 동안 부사구와 같이 쓰여 완결성(telicity)을 보이지 못하고 행위동사로 쓰이나, (2b)처럼 부사구 completely와 같이 쓰이거나 한도 부사구와 같이 쓰여 완결성을 보여 완전히 구워진 완성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 (1) a. Mary baked the potato.
- b. Mary baked the cake.

- (2) a. Mary baked the potato (*completely) for 10 minutes.
 b. Mary baked the potato completely in 10 minutes.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동사 *bake*의 논리적 다의성에 대하여 Pustejovsky (1995)의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1b)와 같은 창조동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2b)와 같이 완성동사의 의미로 쓰인 경우도 어휘 의미구조를 수정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Pustejovsky (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의 기본개념과 동사 *bake*의 논리적 다의성을 설명한 공동합성과 같은 생성기제에 대해 알아보고 (2)와 같은 완결성 교체현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음 3장에서 완결성 교체현상과 척도상의 최대 값을 당연논항으로 설정하여 설명하고자 한 이정민과 김현주(2000)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사건구조를 수정하여 어휘 의미구조를 보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 4장에서는 Pustejovsky(2000)의 양분대립과 사건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보완하여, (2b)와 같이 완결성을 나타내는 경우, 이정민과 김현주(2000)에서 제안한 척도상의 최대치를 당연논항으로 설정하여 양분대립에 의해 새로운 결과상태의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건구조를 수정하고자 한다. 즉 전체적으로 중점인 행위사건과 양분대립에 따른 완결성을 지닌 결과의 상태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 사건구조를 지닌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또 (2a)처럼 완결성을 이루지 못한 행위동사의 경우는 결과로 전이되는 과정이 양분대립을 이루지 못하여 사건지속 구조(Event Persistence Structure)에 따라 중점인 행위사건이 단순히 연속되고 있는 단순 사건구조를 지닌 경우로 설명하여 어휘 의미구조를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2. 생성어휘부 이론과 동사 *bake*의 논리적 다의성 및 공동합성

2.1.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과 어휘 의미구조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은 동사의 기본의미를 어휘 의미구조로 나타내는데, 어휘 의미구조는 사건구조(Event Structure),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 특질구조(Qualia Structure)로 기술하고, 그 동사가 취하는 명사논항의 특성에 따라 그 동사의 의미를 확장하여 나타낸다. 먼저 사건구조는 그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event)의 상적인(aspectual) 특성을 기술하는 하위구조이다.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두 개 이상의 하위사건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위사건은 과정(process)과 상태(state), 그리고 전이(transition)로 나누어질 수 있다. 만약 동사가 복합사건을 의미할 경우 사건구조는 두 개의 하위사건과 그 사건들 사이의 선후관계(precedence restriction)와 그 하위사건들 사이의 현저성(prominence) 차이를 나타내는 중점(Head)으로 이루어진다.

- (3) a. Mary quietly drew a picture.
- b. Mary left the town for two weeks.

(3)의 동사 draw와 leave는 과정과 상태의 두 개의 하위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 사건구조를 의미하는데, 둘 다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결과 상태가 이루어지는 선후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하위사건 사이의 현저성을 보면, draw의 경우 부사 quietly는 그림 그리는 과정을 수식하므로 중점이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leave의 경우 부사 for two weeks는 마을을 떠나는 과정이 아니라 떠난 기간이 2주간이라는 의미로, 결과상태를 수식하므로 중점이 떠난 결과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논항구조에서는 동사의 통사적 논항의 수와 그 논항의 자질을 표시한다. 논항구조에 나타나는 논항으로는 필수적인 논항(true argument), 당연논항(default argument), 그리고 그림자 논항(shadow argument)과 부가어(true adjunct)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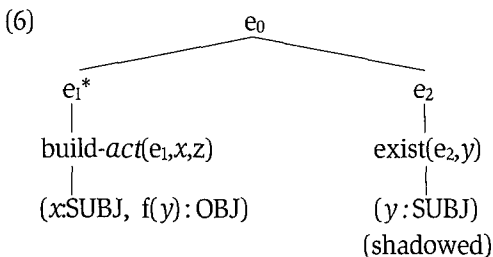
- (4) a. John built the house *out of bricks*.
- b. Mary buttered her toast *with an expensive butter*.

필수논항은 논리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논항으로, 위 예문 (4a)에서 주어인 John과 목적어 house가 이에 해당된다. 당연논항은 논리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통사적으로는 수의적인 논항으로 (4a)의 out of brick으로 표현된 재료 벽돌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자 논항은 술어의 하위개념인 논항으로, 논리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수의적인 논항이나, (4b)의 with an expensive butter처럼 통사적으로 표현될 경우 반드시 특정 수식표현을 동반해야만 한다. 부가어는 장소나 시간 등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말한다.

특질구조란 바로 이러한 사건구조와 논항구조에 나타난 하위사건들과 논항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이다. 특질구조는 형상역(Formal), 작인역(Agentive), 구성역(Constitutive), 기능역(Telic)으로 구성된다. 형상역은 동사의 결과적인 상태와 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작인역은 그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기원과 발생에 관계된 것으로 주로 사건구조의 하위사건 중에서 과정(process)과 관련된다. 구성역은 주어진 대상과 그 대상의 구성성분 또는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며, 기능역은 대상의 목적과 기능을 표시한다. Pustejovsky(1995, p. 82)의 이러한 어휘 의미구조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5) \left[\begin{array}{l} \mathbf{build} \\ \text{EVENTSTR} = \left[\begin{array}{l} E_1 = e_1: \mathbf{process} \\ E_2 = e_2: \mathbf{state} \\ \text{RESTR} = <_{\infty} \\ \text{HEAD} = e_1 \end{array} \right] \\ \text{ARGSTR} = \left[\begin{array}{l} \text{ARG}_1 = \boxed{1} \left[\begin{array}{l} \mathbf{animate_ind} \\ \text{FORMAL} = \mathbf{physobj} \end{array} \right] \\ \text{ARG}_2 = \boxed{2} \left[\begin{array}{l} \mathbf{artifact} \\ \text{CONST} = \boxed{3} \\ \text{FORMAL} = \mathbf{physobj} \end{array} \right] \\ \text{D-ARG}_1 = \boxed{3} \left[\begin{array}{l} \mathbf{material} \\ \text{FORMAL} = \mathbf{mass}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ext{QUALIA} = \left[\begin{array}{l} \text{create-lcp} \\ \text{FORMAL} = \mathbf{exist} (e_2, \boxed{2}) \\ \text{AGENTIVE} = \mathbf{build_act} (e_1, \boxed{1}, \boxed{3})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동사 *build*가 나타내는 사건구조는 과정과 상태로 이루어진 복합사건인데, 그 선후 관계는 건물을 짓는 행위인 과정 e_1 이 먼저 일어나고, 건물이 생겨나는 상태인 e_2 가 그 후에 일어나는 선후관계 $<_{\infty}$ 로 표시된다. 하위사건 사이의 현저성을 나타내는 중점은 과정 e_1 에 있다. 논항구조의 필수논항은 두 개로, 논항₁은 생명이 있는 개체(*animate individual*)로, 형상역은 물리적 대상(*physical object*)이다. 논항₂는 인공물(*artifact*)로 구성역은 물질(*mass*)인 재료로 구성되었고, 형상역은 물리적 대상이다. 당연논항은 물질(*mass*)인 재료이다. 특질구조에서 사건구조와 논항구조에 나타난 하위사건들과 논항들 사이의 관계는 창조의 어휘적 개념유형 (*create lexical conceptual paradigm*)이다. 동사의 결과적인 상태와 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형상역은 인공물이 존재하게 되는 e_2 가 되며,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기원과 발생과 관련된 작인역은 재료로 건물을 짓는 행위인 e_1 이 된다. 그런데 Pustejovsky (1995, pp. 102-104)의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6)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구조의 중점을 통해서 어휘항목의 의미구조를 표면의 통사구조와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즉 사건구조에서 중점이 e_1 에 있으므로, 이와 관계된 특질구조의 작인역에 나타나는 필연논항 x 가 주어로 표면구조에서 실현되고, 당연논항 z 로 구성되는 필연논항 y 가 목적어로 표면구조에서 실현된다. 중점이 놓이지 않는 사건 e_2 는 표면구조로 나타나지 않고, 가려지게(shadowed) 된다.

2.2. 동사 bake의 논리적 다의성과 공동합성

Pustejovsky(1995, p. 122)는 다음과 같이 동사 bake가 상태변화의 의미로도, 창조 의미로도 쓰이는 다의성에 대해 어휘규칙이나, 나열식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동사가 목적어 등과 같은 보충어(complement)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공동-합성(co-composition)의 방식으로 설명한다.¹⁾

- (7) a. Mary baked the potato.
- b. Mary baked the cake.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대부분의 나열적 어휘 의미이론들이 우연적 다의성과 논리적 다의성의 차이를 구별하여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논리적 다의성은 같은 어휘 항목이 논리적으로 관련된 단어 의미들을 나타낼 경우를 말하는 경우로, 위의 동사 bake의 다의성도 바로 이런 논리적 다의성에 해당된다. 이때 이와 같은 bake의 둘 이상의 의미를 흔히 어휘규칙으로 설명한다고 하나, 어휘부에 $bake_1$ 과 $bake_2$ 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나열적인 의미기술 방식은 두 의미 사이의 긴밀한 의미상의 관련성을 생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현상적으로만 나타낼 뿐이다. Pustejovsky(1995, p. 122)는 bake의 다의적인 두 의미는 동사의 의미와 목적어의 의미가 긴밀하고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직관에 기초하여, 두 의미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동사구의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공동-합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때 동사 bake의 어휘적 의미는 행위사건인 과정(process)으로서 균질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단일한 행위사건인 과정으로 본다.

1) 보충어인 목적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동동사에서 좌접(goal)의 전치사구도 보충어로서 공동합성으로 설명한다.

- i) a. The bottle is floating in the river.
- b. The bottle floated *under the bridge*.

ia)의 동사 float는 단순히 이동하는 행위동사의 의미로 쓰였지만, ib)의 동사 float는 *under the bridge*와 공동합성하여 이동 완료된 달성동사의 의미로 쓰인다.

$$(8) \left[\begin{array}{l} \mathbf{bake} \\ \text{EVENTSTR} = \left[\begin{array}{l} E_1 = e_1: \mathbf{process} \\ \text{HEAD} = e_1 \end{array} \right] \\ \text{ARGSTR} = \left[\begin{array}{l} \text{ARG}_1 = [1] \left[\begin{array}{l} \mathbf{animate_ind} \\ \text{FORMAL} = \mathbf{physobj} \end{array} \right] \\ \text{ARG}_2 = [2] \left[\begin{array}{l} \mathbf{mass} \\ \text{FORMAL} = \mathbf{physobj}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ext{QUALIA} = \left[\begin{array}{l} \text{state-change-lcp} \\ \text{AGENTIVE} = \mathbf{bake_act} (e_1, [1], [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동사 *bake*가 나타내는 사건구조는 굽는 행위인 과정 e_1 으로 표시되며, 당연히 증점도 과정 e_1 에 있다. 논항구조의 필수논항은 두 개로, 논항₁은 생명이 있는 개체로, 형상역은 물리적 대상이다. 논항₂는 물질(*mass*)로, 형상역은 마찬가지로 물리적 대상이다. 특질구조에서 사건구조와 논항구조에 나타난 논항들 사이의 관계는 상태변화의 어휘적 개념유형(*state-change-lexical conceptual paradigm*)이다.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기원과 발생과 관련된 작인역은 개체 논항₁이 물질 논항₂를 굽는 행위인 e_1 이 된다. 따라서 (7a)처럼 동사와 결합하는 목적어가 자연물인 감자일 경우 위의 의미가 그대로 투사된다.

한편 인공물과 공동-합성될 때는 굽는 행위를 나타내는 과정과 결과로 인공물이 존재하게 되는 상태사건인 창조로의 복합 사건구조를 지니게 되어 창조의 완성동사의 의미가 된다.²⁾ 먼저 공동-합성의 생성기제를 살펴보자.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 케익의 어휘 의미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다.

$$(9) \left[\begin{array}{l} \mathbf{cake} \\ \text{ARGSTR} = \left[\begin{array}{l} \text{ARG}_1 = x: \mathbf{food_ind} \\ \text{D-ARG}_1 = y: \mathbf{mass} \end{array} \right] \\ \text{QUALIA} = \left[\begin{array}{l} \text{CONST} = y \\ \text{FORMAL} = x \\ \text{TELIC} = \mathbf{eat}(e_2, z, x) \\ \text{AGENTIVE} = \mathbf{bake_act} (e_1, w, y)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보통명사 케익의 논항구조는 x 라는 음식물_개체로, 당연논항으로 y 라는 물질인 재료가 있다. 특질구조는 물질인 y 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상역은 x 라는 음식물_개체이며, 목적을 나타내는 기능역은 음식물을 먹는데 사용되므로 임의의 개체 z 가 음식물 x 를 먹는 사건 e_2 로 표시된다.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기원 및 발생과 관

2) 이러한 다의 동사로는 *bake* 외에 *fry*, *cook* 등이 있다.

런된 작인역은 임의의 개체 w 가 물질 y 로 굽는 행위사건인 e_1 으로 표시된다. 이와 같은 인공물 케익이 동사 bake와 결합할 경우 특질구조속의 작인역이 같다는 데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특질구조 통합(qualia unification)과정이 이루어진다.

(10) FUNCTIONAL APPLICATION WITH QUALIA UNIFICATION:

For two expressions, α , of type $\langle a, b \rangle$, and β , of type a , with qualia structures QS_α and QS_β , respectively, then, if there is a qualia value shared by α and β , $[QS_\alpha \cdots [Qi = v]]$ and $[QS_\beta \cdots [Qi = v]]$, then we can define the qualia unification of QS_α and QS_β , $QS_\alpha \cap QS_\beta$, as the unique greatest lower bound of these two qualia structures. Furthermore, $\alpha(\beta)$ is of type b with $QS_{\alpha(\beta)} = QS_\alpha \cap QS_\beta$.

$\langle a, b \rangle$ 유형과 특질구조 QS_α 를 갖는 표현 α 와, 유형 a 와 특질구조 QS_β 를 갖는 표현 β 가 있어, 그 특질구조가 $[QS_\alpha \cdots [Qi = v]]$ 와 $[QS_\beta \cdots [Qi = v]]$ 로서 공통일 경우, $\alpha(\beta) \rightarrow b$ 유형 (동사구 유형)이라는 함수가 적용되고, $(QS_{\alpha(\beta)} = QS_\alpha \cap QS_\beta)$ 라는 특질구조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동사구 bake a cake이 공동합성된다.

이때 논항구조에서 제2 논항이 달라져, 논항₂는 인공물인 ②가 되며, 이 인공물은 재료인 ③으로 구성되며, 형상은 물리적 대상이다. 또 당연논항₁은 재료인 ③으로 형상은 물질이다. 또 사건구조에는 $E_2 = e_2$ 결과상태가 추가된다. 이밖에 특질구조도 형상역으로 인공물인 ②가 존재하게 된다는 결과상태 사건 e_2 가 첨가되면서 창조개념 유형으로 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어의 의미 정보가 관련 동사에 전수되어 동사를 논항으로 취해 그 사건 유형을 전이(shift)시킨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목적어와 동사 사이의 관계를 생성적으로 유연성 있게 합성함으로써 완성적 특질을 보인다. 종래의 의미역할 중심의 논항구조만의 분석으로는 논리적 다의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성적 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상태변화 동사와 창조동사의 의미로 다 쓰이는 논리적 다의성을 생성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 (11) **bake a cake**
- $$\left[\begin{array}{l} \text{EVENTSTR} = \left[\begin{array}{l} E_1 = e_1: \text{process} \\ E_2 = e_2: \text{state} \\ \text{RESTR} = <_{\infty} \\ \text{HEAD} = e_1 \end{array} \right] \\ \text{ARGSTR} = \left[\begin{array}{l} \text{ARG}_1 = \boxed{1} \left[\begin{array}{l} \text{animate_ind} \\ \text{FORMAL} = \text{physobj} \end{array} \right] \\ \text{ARG}_2 = \boxed{2} \left[\begin{array}{l} \text{artifact} \\ \text{CONST} = \boxed{3} \\ \text{FORMAL} = \text{physobj} \end{array} \right] \\ \text{D-ARG}_1 = \boxed{3} \left[\begin{array}{l} \text{material} \\ \text{FORMAL} = \text{mass}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text{QUALIA} = \left[\begin{array}{l} \text{create-lcp} \\ \text{FORMAL} = \text{exist} (e_2, \boxed{2}) \\ \text{AGENTIVE} = \text{bake_act} (e_1, \boxed{1}, \boxed{3})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은 공동-합성과 같은 생성기제로 동사 *bake*의 상태변화로서의 행위동사의 의미와 상태변화의 확장인 창조동사의 의미는 잘 설명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완결성 교체현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 (12) a. Mary baked the potato for 20 minutes.
 b. Mary baked the potato (completely) in 20 minutes.

(12a)에 쓰인 동사 *bake*는 목적어인 *potato*가 물질로서 어느 정도 구워졌는지 언급이 없고, 동안부사구 *for 20 minutes*와 같이 쓰이므로, 과정의 e_1 사건만 있고, 결과상태의 사건을 상정하지 않는 행위동사의 의미로 쓰인 경우다. 그러나 (12b)에 쓰인 동사 *bake*는 정도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부사 *completely*와 같이 쓰이고, 또 기간 한도 부사구 *in 20 minutes*와 공기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결과 감자가 완전히 구워졌다는 완결성을 나타내는 완성동사의 의미로 쓰인 경우다. 즉 굽는 행위는 물질에 열을 가해 균질적으로 상태변화가 일어나는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과정이지만, 태우기 이전의 먹기 알맞게 잘 익은 정도와 같이 상식적으로 부과되는 굽다의 완결점을 잡아 이 최대치(maximality)를 만족시켰을 때(*completely*) 구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완결성 교체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3. 완결성 교체현상과 이정민·김현주(2000)의 수정 확대 어휘 의미구조

3.1. 완결성 교체현상

Hay, Kennedy and Levin(1999)은 다음과 같이 정도 달성동사(degree achievements)를 무한척도 술어(open-range predicate)와 완결성을 보이는 유한척도 술어(closed-range predicate)로 분류하여 구별한다.

- (13) a. Kim is lengthening the rope. ⇒ Kim has lengthened the rope.
 b. They are widening the road. ⇒ They have widened the road.
 c. The lake is cooling. ⇒ The lake has cooled.

- (14) a. Kim is straightening the rope. ⇏ Kim has straightened the rope.
 b. They are emptying the glass. ⇏ They have emptied the glass.
 c. The clothes are drying. ⇏ The clothes have dried.

(13)의 lengthen, widen, cool 등은 상태변화의 정도에 대한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한척도 술어로 완결성이 없으므로,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한다. 반면 (14)의 straight, empty, dry 등은 상태변화의 정도에 대한 척도상의 최대치를 당연 값으로 취하는 유한척도 술어로 완결성을 보여,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하지 않는다.³⁾ 그러나 완결성이 없는 무한척도 술어도 다음과 같이 유한척도 표현과 같이 쓰이면 완결성을 보인다.

3) Hay, Kennedy and Levin(1999)은 술어가 기술하는 사건의 완결성(telicity)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 미완료 역설(imperfective paradox)로 알려진 현상으로 예문 (13-4)에서 보듯 비완결성 술어는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하지만, 완결성 술어는 이런 함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예문 (12)에서 보듯 비완결성 술어는 기간 부가어(durative adverbial)인 for-전치사가 수식하는데 비하여, 완결성 술어는 시간한도 부가어(time span adverbial)인 in-전치사가 수식한다. 셋째 비완결성 술어는 almost와 공기하는 맥락에서 해석상의 중의성을 보이지 않는데 비하여, 완결성 술어는 중의성을 보인다.

- (i) a. Lee almost recited poetry.
 b. Lee almost read *Eugene Onegin*.

(ia)는 완결성이 없는 행위동사로 almost는 시낭송하는 행위만을 수식하므로, '시를 거의 낭송할 뻔했으나, 실제로는 낭송하지 않았다'는 의미 하나만 있다. 반면 (ib)는 완결성이 있는 완성동사로 almost의 수식범위에 따라 두 가지 의미의 중의성을 보인다. 즉 almost가 읽는 행위를 수식하는 경우, '*Eugene Onegin*을 거의 읽을 뻔했으나, 실제로는 읽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almost가 결과상태를 수식할 경우 '*Eugene Onegin*을 거의 다 읽을 뻔했으나, 실제로는 다 읽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15) a. Kim is lengthening the rope 5 inches.
 ⇒ Kim has lengthened the rope 5 inches.
 b. They are widening the road 5 meters.
 ⇒ They have widened the road 5 meters.
 c. The lake is cooling 4 degrees. ⇒ The lake has cooled 4 degrees.

무한척도 술어 lengthen, widen, cool 등이 (15)에서 보듯 유한척도 표현 5인치, 5미터, 4도 등과 같이 쓰일 때는 완결성을 보여,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하지 못한다. 즉 Hay, Kennedy and Levin(1999)은 완결성이란 술어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유한척도로 해석되느냐 무한척도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완결성 교체현상이 일어난다고 본다. 또 완결성이란 달성동사와 완성동사와 같은 술어의 의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술어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유한척도로 해석되느냐 무한척도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본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같은 무한척도 술어이지만, 맥락 의존적(context-dependent)이어서 이런 완결성 교체현상이 일어난다.

- (16) a. The traffic is lengthening my commute.
 ⇒ The traffic has lengthened my commute.
 b. Kim is lowering the heat. ⇒ Kim has lowered the heat.
- (17) a. The tailor is lengthening my pants.
 ⇒ The tailor has lengthened my pants.
 b. Kim is lowering the blind. ⇒ Kim has lowered the blind.

lengthen, lower 등은 무한척도 술어로 (16)처럼 완결성이 없어서,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한다. 그러나 my pants나 the blind와 같이 쓰일 경우, pants와 blind에 대해 사회적 맥락에 따라 관습적으로 정해진 길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유한척도로 해석된다. 즉 완결성을 보여, 진행형의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함의하지 못한다. 이처럼 같은 무한척도 술어라도 맥락 의존적으로 어떤 명사구와 쓰였느냐에 따라 무한척도로도 유한척도로도 해석되어 완결성 교체현상을 보인다. 즉 Hay, Kennedy and Levin(1999)는 완결성이란 달성동사와 완성동사와 같은 술어의 의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술어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유한척도로 해석되느냐 무한척도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본다.

또 위와 같이 맥락적으로 정해지는 완결성도 맥락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함축으로 정의한다.

- (18) a. Kim straightened the rope, but not completely.
 b. The tailor lengthened my pants, but not completely.

straighten은 어휘 그 자체 의미에서 척도상의 최대치를 당연 값으로 취하는 유한척도 술어로 완결성을 보이는 완성동사로 완결성을 함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18a)에서 보듯 그 완결성을 부정해도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즉 최대치의 당연 값에 의한 완결성은 취소가 가능한 대화상의 함축일 뿐이다. 또 lengthen은 무한척도 술어이지만 my pants와 같이 쓰일 때 맥락적으로 pants에 대해 관습적으로 정해진 유한척도의 길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완결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18b)처럼 이를 부정해도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관습적으로 정해진 유한척도의 완결성은 취소가 가능한 대화상의 함축일 뿐이다.

이처럼 Hay, Kennedy and Levin(1999)은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술어의 경우 척도표현에 따라 무한척도 술어와 유한척도 술어로 분류하여 유한척도 술어의 경우만 완결성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또 무한척도 술어도 유한척도 표현과 같이 쓰이거나 맥락에 따라 완결성을 보이므로 완결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Hay, Kennedy and Levin(1999)은 이와 같은 완결성 교체현상을 분류하여 기술하고만 있지, 이들 술어들이 어떻게 완결성을 보이는 완성술어로 해석되며, 완결성을 보이지 않는 행위술어로 해석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특히 완결성 교체현상을 그 술어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술어의 상적 의미에 따른 행위술어와 완성술어의 분류를 무시하고 있다.

3.2. 이정민·김현주(2000)의 수정 확대 어휘 의미구조

이정민·김현주(2000)는 한국어 상태변화의 정도 달성동사들이 갖는 완결성 교체현상을 근거로 Pustejovsky(1995)의 어휘 의미구조를 수정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12b)처럼 동사 bake가 상태변화의 완성동사로 쓰인 경우, 상태변화 척도상의 최대 값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들 척도상의 최대 값을 당연논항으로 간주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즉 영어 bake에 해당하는 한국어 동사 ‘굽다’ 등의 어휘 의미구조를 기술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 bake와 달리 상태변화 척도상의 최대 값을 함축하는 유한척도 술어로 보고, 기존의 당연논항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음처럼 어휘 의미구조를 수정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19)	(감자들) 굽다
EVNT-STR=	$\left[\begin{array}{l} E_1= e_1= \text{과정}_1(\text{CAUSATION}) \\ E_2= e_2= \text{전이}(\text{과정}_2+\text{상태}) \\ \text{HEAD}= e_1 \end{array} \right]$
ARG-STR=	$\left[\begin{array}{l} \text{ARG}_1= x: \text{animate_ind} \\ \text{ARG}_2= y: \text{food-ind/material} \\ \text{D-ARG}_1= z[\text{FORMAL}= \text{굽다-result}(y) = \\ \text{Max}(\text{굽다-result}(Y))] \end{array} \right]$
QUALIA=	$\left[\begin{array}{l} \text{change-of-state-lcp} \\ \text{FORMAL}= \text{굽다-result}(y)(e_2, z) \\ \text{TELIC}= \text{INCREASE}(e_2, \text{굽다-result}(y), z) \\ \text{AGENT}= \text{굽다-act}(e_1, x, y) \end{array} \right]$

(19)는 유한척도의 상태변화 의미를 갖는 한국어 동사 ‘굽다’의 의미구조 기술이다. Pustejovsky(1995)에서의 ‘굽다’에 대응하는 *bake*의 의미표상과는 달리 유한척도 술어로 보아, 술어에 의해 도입되는 구워진 정도에 따른 척도상의 최대치를 당연논항으로 취하여 결과 상태를 표시하고 있다. 즉, 척도상의 최대치는 논항구조속에 당연논항으로 감자 등의 음식(*food-ind*)이나 재료 *y*가 구워진 척도상의 최대치(maximum) *z*로 표시한다. 따라서 결과로 전이되는 사건 e_2 는 상태변화의 특질구조속에서 음식 *y*가 구워져 그 결과 최대치 *z*가 된다는 형상역(FOMAL)으로도, *y*의 구워진 정도가 척도상의 최대치 *z*로 증가된다는 목적을 나타내는 기능역(TELIC)으로도 표시되므로 완결성을 자연스럽게 나타낸다. 이처럼 본래 유한척도 술어는 당연논항이 갖는 의미정보가 통사적으로는 안 나타나다더라도 척도상의 최대치를 논항구조속의 당연논항으로 설정하여, 특질구조속에 결과로 전이되는 사건 e_2 를 형상구조와 기능역으로 표시하여 완결성을 설명한다. 이때 척도상의 최대치에 대한 당연논항의 의미정보는 통사적인 명시성(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기간 부가어 또는 대략적인 정도를 표시하는 부사들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즉, 당연논항의 의미정보가 취소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술어의 완결성 교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한편 본래적으로 무한척도를 도입하는 술어는 명시적인 수량표현의 통사적 실현에 따라 완결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넓히다’류의 무한척도 술어의 어휘 의미구조를 기술하는데 있어, 술어가 갖는 완결성은 다음 (20b)처럼 명시적으로 척도를 제한하는 수량표현에 의해 도입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수량표현을 논항구조에서 일종의 당연논항으로 설정하여, 공동-합성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무한척도 술어의 경우 수량표현이 통사적으로 실현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완결성 교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 (20) a. 인부들이 1년 동안 그 길을 (*?10미터) 넓혔다.
 b. 인부들이 1년 만에 그 길을 ?(10미터) 넓혔다.

무한척도의 정도달성동사 ‘넓히다’를 상태변화 동사로 본다. 단 (20a)처럼 10미터와 같이 명시적인 수량표현과 같이 쓰일 수 없는 경우 논항구조에 당연논항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20b)처럼 10미터와 같이 명시적인 수량표현이 통사적으로 나타난 경우 논항구조속에 별도의 당연논항을 설정하여 표시한다. 이때 당연논항의 기능역과 이를 논항구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술어의 기능역이 공통적인 의미 정보를 갖는 공동-합성에 근거하여 특질구조 통합이 일어나, 완결성 해석이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이를 다음과 같은 어휘 의미구조로 나타내고 있다.

(21) a. **[길을 P 넓히다**

EVNT-STR=	<table border="0"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E₁= e₁=</td> <td style="padding-left: 5px;">과정₁(CAUSATION)</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E₂= e₂=</td> <td style="padding-left: 5px;">전이(과정₂+상태)</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HEAD=</td> <td style="padding-left: 5px;">e₁</td> </tr> </table>	E ₁ = e ₁ =	과정 ₁ (CAUSATION)	E ₂ = e ₂ =	전이(과정 ₂ +상태)	HEAD=	e ₁						
E ₁ = e ₁ =	과정 ₁ (CAUSATION)												
E ₂ = e ₂ =	전이(과정 ₂ +상태)												
HEAD=	e ₁												
ARG-STR=	<table border="0"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ARG₁= x:</td> <td style="padding-left: 5px;">animate_ind</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ARG₂= y:</td> <td style="padding-left: 5px;">location</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ARG-STR= ARG₁= y: location</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D-ARG₁=w: measure[-bounded]</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QUALIA= location measure-lcp</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FORMAL= HAVE(e,y,w)]</td> </tr> </table>	ARG ₁ = x:	animate_ind	ARG ₂ = y:	location		[ARG-STR= ARG ₁ = y: location		D-ARG ₁ =w: measure[-bounded]		QUALIA= location measure-lcp		FORMAL= HAVE(e,y,w)]
ARG ₁ = x:	animate_ind												
ARG ₂ = y:	location												
	[ARG-STR= ARG ₁ = y: location												
	D-ARG ₁ =w: measure[-bounded]												
	QUALIA= location measure-lcp												
	FORMAL= HAVE(e,y,w)]												
QUALIA=	<table border="0"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i>change-of-state-lcp</i></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TELIC= INCREASE(e₂,(_넓(y))) = 넓어지다(e₂,(_넓(y)))</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AGENT= CAUSE-INCREASE_act(e₁,x,(_넓(y)))</td> </tr> </table>		<i>change-of-state-lcp</i>		TELIC= INCREASE(e ₂ ,(_넓 (y))) = 넓어지다(e ₂ ,(_넓 (y)))		AGENT= CAUSE-INCREASE_act(e ₁ ,x,(_넓 (y)))						
	<i>change-of-state-lcp</i>												
	TELIC= INCREASE(e ₂ ,(_넓 (y))) = 넓어지다(e ₂ ,(_넓 (y)))												
	AGENT= CAUSE-INCREASE_act(e ₁ ,x,(_넓 (y)))												

b. **[길을 MP 넓히다**

EVNT-STR=	<table border="0"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E₁= e₁=</td> <td style="padding-left: 5px;">과정₁(CAUSATION)</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E₂= e₂=</td> <td style="padding-left: 5px;">전이(과정₂+상태)</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HEAD=</td> <td style="padding-left: 5px;">e₁</td> </tr> </table>	E ₁ = e ₁ =	과정 ₁ (CAUSATION)	E ₂ = e ₂ =	전이(과정 ₂ +상태)	HEAD=	e ₁												
E ₁ = e ₁ =	과정 ₁ (CAUSATION)																		
E ₂ = e ₂ =	전이(과정 ₂ +상태)																		
HEAD=	e ₁																		
ARG-STR=	<table border="0"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ARG₁= x:</td> <td style="padding-left: 5px;">animate_ind</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ARG₂= y:</td> <td style="padding-left: 5px;">location</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ARG-STR= ARG₁= y: location</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D-ARG₁=w: measure[-bounded]</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QUALIA= location measure-lcp</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FORMAL= HAVE(e,y,w)]</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D-ARG₁= z: numeric measure[+bounded]</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QUALIA= FORMAL= ∈ or ⊆(e₂,z,w)</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TELIC= INCREASE(e₂,(_넓(y)),z)]</td> </tr> </table>	ARG ₁ = x:	animate_ind	ARG ₂ = y:	location		[ARG-STR= ARG ₁ = y: location		D-ARG ₁ =w: measure[-bounded]		QUALIA= location measure-lcp		FORMAL= HAVE(e,y,w)]		D-ARG ₁ = z: numeric measure[+bounded]		[QUALIA= FORMAL= ∈ or ⊆(e ₂ ,z,w)		TELIC= INCREASE(e ₂ ,(_넓 (y)),z)]
ARG ₁ = x:	animate_ind																		
ARG ₂ = y:	location																		
	[ARG-STR= ARG ₁ = y: location																		
	D-ARG ₁ =w: measure[-bounded]																		
	QUALIA= location measure-lcp																		
	FORMAL= HAVE(e,y,w)]																		
	D-ARG ₁ = z: numeric measure[+bounded]																		
	[QUALIA= FORMAL= ∈ or ⊆(e ₂ ,z,w)																		
	TELIC= INCREASE(e ₂ ,(_넓 (y)),z)]																		
QUALIA=	<table border="0"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i>change-of-state-lcp</i></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FORMAL= _넓(y)+z(e₂, w)</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TELIC= INCREASE(e₂,(_넓(y)),z) = 넓어지다(e₂,(_넓(y)),z)</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right: 5px;"></td> <td style="padding-left: 5px;">AGENT= CAUSE-INCREASE_act(e₁,x,(_넓(y)))</td> </tr> </table>		<i>change-of-state-lcp</i>		FORMAL= _넓 (y)+z(e ₂ , w)		TELIC= INCREASE(e ₂ ,(_넓 (y)),z) = 넓어지다(e ₂ ,(_넓 (y)),z)		AGENT= CAUSE-INCREASE_act(e ₁ ,x,(_넓 (y)))										
	<i>change-of-state-lcp</i>																		
	FORMAL= _넓 (y)+z(e ₂ , w)																		
	TELIC= INCREASE(e ₂ ,(_넓 (y)),z) = 넓어지다(e ₂ ,(_넓 (y)),z)																		
	AGENT= CAUSE-INCREASE_act(e ₁ ,x,(_넓 (y)))																		

일단 사건구조는 사역적인 행위사건 e_1 과 그 결과로 전이되는 사건 e_2 의 복합 사건구조로 나타낸다. 단, 명시적인 수량표현과 같이 쓰일 수 없는 경우, (21a)처럼 결과로 전이되는 사건 e_2 는 상태변화의 특질구조속에 길이 넓어진다는 목적을 나타내는 기능역(TELIC)으로만 표시하여 완결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반면 명시적인 수량표현이 통사적으로 나타난 경우, (21b)처럼 논항구조속에 별도의 당연논항을 설정하여, [+bound]인 구체적인 숫자 Z 로 표시한다. 또 결과로 전이되는 사건 e_2 는 논항구조속에 당연논항에 대한 특질구조속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의 상태변화의 특질구조속에서도 길이 Z 만큼 넓어지는 형상역으로도, 길이 Z 만큼 넓어진다는 목적을 나타내는 기능역으로도 표시되므로 완결성을 나타낸다. 즉 척도상의 특정 값을 나타내는 당연 논항의 기능역과 술어의 기능역이 공통적인 의미정보를 갖는 공동-합성에 근거하여 특질구조 통합이 일어나, 완결성 해석이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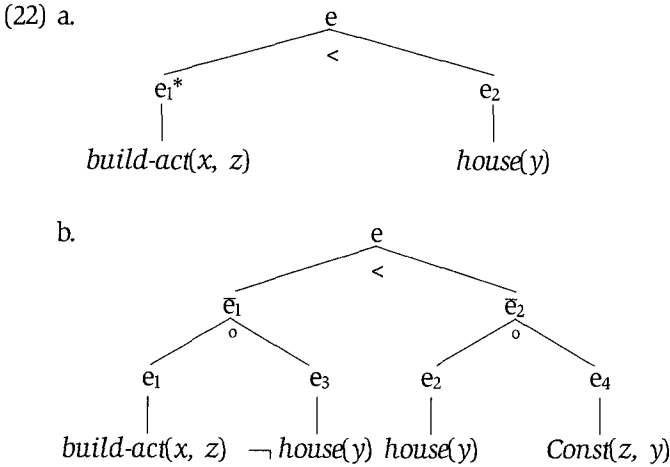
이때 영어 동사 *bake*의 완결성 교체현상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bake*를 기본적으로 Pustejovsky(1995)처럼 무한척도인 상태변화 동사로 보고, 명시적으로 척도상의 최대치에 대한 당연논항의 의미정보는 통사적인 명시성(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최대치를 나타내는 부사 *completely*나 기간한도 부사어 *in 20 minutes*에 의해 도입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부사어에 의해 도입된 척도상의 최대치에 대한 의미정보는 논항구조에서 일종의 당연논항으로 설정하여, 공동-합성(co-composition)으로 설명한다. 두 번째는 반대로 이정민·김현주(2000)에서처럼 *bake*를 기본적으로 한국어 동사 ‘굽다’와 같이 유한척도 술어로 보고, 척도상의 최대치에 대한 당연논항의 의미정보는 통사적인 명시성(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기간 부사어 *for 20 minutes*, 또는 대략적인 정도를 표시하는 부사들에 의해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성이 있으나 *bake*는 무한척도 술어인 (15)의 *lengthen*, *widen*, *cool* 등과 달리 명시적으로 척도를 제한하는 유한척도 수량표현과 공기하지 않더라도 완결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bake*를 유한척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정민·김현주(2000)처럼 *bake*를 척도상의 최대치를 당연논항으로 분석한 유한척도 술어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사건구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이정민·김현주(2000)에서는 유한척도 술어이건 무한척도 술어이건 상태변화 동사의 사건구조를 사역적인 행위사건 e_1 과 그 결과로 전이되는 사건 e_2 의 복합 사건구조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2a)처럼 당연논항에 의해 도입된 완결성이 취소되어 행위동사의 사건구조가 되는 경우(또는 무한척도 술어의 경우 통사적으로 유한 척도 표현과 공기하지 않아 단순히 상태변화의 행위술어로 쓰일 경우) 사건구조의 구별에 대한 언급이 없다.⁴⁾

4) 이정민·김현주(2000)는 기본적으로 완결성 교체현상을 그 술어가 쓰이는 맥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Hay, Kennedy and Levin(1999)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Hay, Kennedy and Levin(1999)과 마찬가지로 술어의 상적 의미에 따른 행위술어와 완성술어의 분류가 불분명하다.

4. Pustejovsky(2000)의 사건구조와 완결성 교체현상 및 어휘 의미구조

4.1. Pustejovsky(2000)의 사건 지속구조 원리

Pustejovsky(2000)의 사건구조와 대립 이론에서는 build와 같은 창조동사의 사건구조에 대한 도식을 다음 (22a)에서 (22b)로 수정하였다.



(22a)의 사건구조는 건물을 짓는 행위인 과정 e_1 이 먼저 일어나고, 건물이 생겨나는 상태인 e_2 가 그 후에 일어나는 선후관계 < 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건구조는 재료인 z 와 인공물인 집 y 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 설명이 없고, 더구나 build라는 행위를 해서 어떻게 없던 집이 만들어지는지 설명이 없다. 따라서 (22b)처럼 양분대립(binary opposition)에 따른 사건구조 $\langle \neg p, p \rangle$ 와 구성성분에 대한 사건구조 $Const(z, y)$ 을 도입하여 수정하였다. 즉 재료 z 로 집 짓는 행위($e_1, build-act(x, z)$)를 할 당시에는 집이 없었는데($e_3, \neg house(y)$), 그 행위를 한 결과 집이 만들어졌고($e_2, house(y)$), 또 그 집은 재료 z 로 구성되었다($e_4, Const(z, y)$)는 사건구조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사건 e_1 이 시작될 당시에는 집이 없었으나, 사건 e_1 이 완료된 후에는 집이 만들어졌다는 양분대립의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Pustejovsky(2000, p. 465,467)는 다음과 같은 사건 지속구조(Event Persistence Structure)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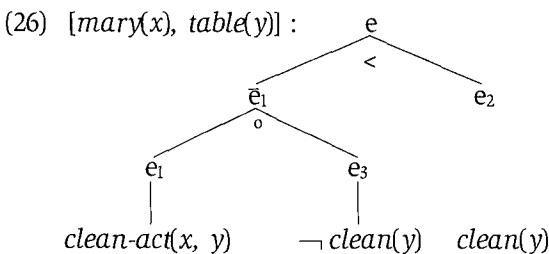
- (23) a. The Principle of Property Inertia; objects and their properties tend to remain as they are unless explicitly affected.
- b. Qualia Selection Thesis; modifiers selectively bind to specific qualia of the head noun.

- (24) a. GATE: For an event description, $\delta \in \Delta$, in the domain of the matrix predicate P , δ is *gated* by P only if the property denoted by δ is either initiated or terminated by P .
- b. PERSIST; If δ is not gated, then it is said to *persist* relative to the matrix predicate P .

(23a)는 개체나 그 속성은 명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속성관성의 원리이고, (23b)는 수식어는 수식 받는 명사의 특정 특질과 선택적으로 결합한다는 특질 선택 원리이다. (24a)는 전체 사건구조 Δ 의 부분 집합인 사건구조 δ 는 주절 술어 P 의 영역 안에서 δ 에 의해 나타내는 속성이 술어 P 에 의해 시작되거나 종결될 때에만 변화의 문이 열린다는 사건구조 변화의 원리이다. (24b)는 변화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사건구조는 지속된다는 사건구조 지속의 원리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향권과 명시적인 영향으로 양분대립의 개념을 도입한 점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창조동사나 상태변화 동사에서 동사가 서술하는 사물의 상태변화를 영향권과 의미적으로 양분대립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술하고 있다.

- (25) a. Mary built a house.
- b. Mary cleaned the table.

(25a)에서는 논항 Mary는 변함이 없이 지속되지만 동사 build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목적어 house는 명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즉 없었는데(\neg house) 집이 있게되는 (house) 양분대립이 성립하여 변화의 문이 열린다. 또 (25b)에서는 논항 Mary와 table 자체는 변함이 없이 지속되지만 서술어 clean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목적어 table의 상태는 명시적으로 영향을 받아 깨끗하지 않은 상태(\neg clean)에서 깨끗한 상태(clean)로 변하는 양분대립이 성립하여 변화의 문이 열린다. 이때 개체 x 가 Mary이고, 개체 y 가 테이블이라는 서술 $[mary(x), table(y)]$ 은 술어가 나타내는 중점사건 깨끗이 청소하는 행위 $e_1[clean-act(x, y)]$ 보다 넓은 영향권(wide scope)을 가지므로 사건지속 구조(EPs)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함이 없이 지속된다. 이를 사건구조로 도식화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테이블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건 e_1 : [$\neg clean(y)$]는 술어의 영향권에 들어감으로 영향을 받아 상태변화의 문이 열려 그 후의 결과 상태 e_2 : [$clean(y)$]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한다.⁵⁾ 이와 같이 술어의 영향권을 설정하여 넓은 영향권을 지닌 사건은 그 사건에 참여한 논항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아 지속되고, 좁은 영향권을 지닌 당시 상태의 사건은 영향을 받아 상태변화의 문이 열려 변화된다는 사건지속 구조(Event Persistence Structure)로 잘 설명하고 있다. 또 상태변화를 양분대립에 따른 결과 상태로 별도의 사건구조로 설정하여 잘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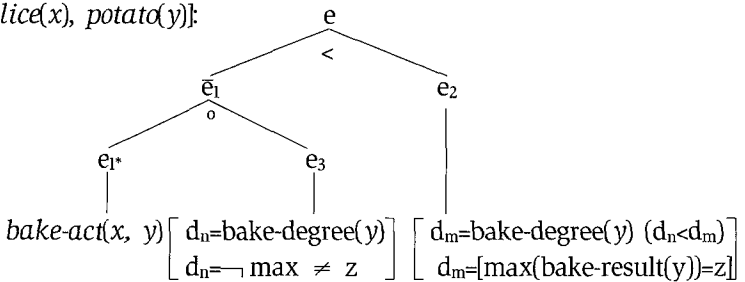
4.2. 동사 bake의 완결성 교체현상과 어휘 의미구조

앞에서 살펴본 동사 bake의 완결성 교체현상을 이와 같은 사건지속 구조의 원리를 적용하여 어휘구조를 수정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27) a. Alice baked the potato (completely) in 20 minutes.
- b. Alice baked the potato for 20 minutes.

먼저 동사 bake를 기본적으로 상태변화 척도상의 최대치를 당연논항으로 함축하고 있는 유한척도 술어로 본다. (27a)처럼 당연논항에 의해 척도상의 최대치를 함축하여 완결성을 보이는 경우의 사건구조는 다음과 같다.

(28) [$alice(x), potato(y)$]:



개체 x 가 Alice이고, 개체 y 가 potato라는 기술은 술어 bake에 의한 중점행위 사건 e_1 보다 넓은 영향권을 가지므로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된다. 또 중점행위 사

5) 조금 더 복잡한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i) a. Mary cleaned the dirty table.
- b. Mary built a two-story brick house.

(ia)의 경우 (26)의 경우와 같으나, 테이블이 더러웠다[$dirty(y)$]는 부대상황이 중점사건 깨끗이 청소하는 행위 e_1 의 적용범위에 들어감으로 상태변화의 문이 열려 새로운 결과 상태사건 e_2 에 더럽지 않은 상태라는 [$\neg dirty(y)$]가 더 첨가된다. 또 (ib)의 경우는 집이 없었는데, 그 행위를 한 결과 집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22b)와 마찬가지로, 2층이 아니었다는 [$\neg 2-story(y)$]와, 2층집이 되었다는 [$2-story(y)$]가 더 첨가된다.

건 e_1 은 x 가 y 를 굽는 행위 $bake-act(x, y)$ 로 기술한다. 또 그 행위 사건 당시의 상황인 e_3 는 감자와 같은 물질 y 의 구워진 정도가 임의의 척도인 d_m 으로 기술한다. 이때 감자의 구워진 정도 d_m 은 척도상의 최대치(maximum)가 아니므로 ‘ $\neg \max$ ’를 첨가한다. 그러나 이 부대상황에 대한 사건 e_3 는 중점행위 사건 e_1 의 영향권 안에 있으므로 영향을 받아 변화가 일어나 그 후의 상태변화 상황은 그 보다 임의의 정도가 더 구워진 d_m 으로 기술한다. 이때 척도상의 최대치인 당연논항 z 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z 가 되었다는 것을 첨가한다. 즉 척도상의 최대치가 아니었다 최대치가 되었다는 양분 대립이 성립하므로 상태변화의 문이 열려 그 후의 결과 상태는 행위사건 당시의 부대상황 사건 e_3 와는 다른 별도의 결과 상태의 사건 e_2 가 된다. 그러나 다 구워졌다는 최대치에 대한 당연논항 z 값은 맥락에 의해 정해진 함축으로 취소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max(bake-result(y))=z]$ 처럼 대괄호를 사용하여 표시해 준다. 이때 명시적으로 completely와 공기할 시, 다음 (29a)처럼 이를 부정할 경우 모순이 생겨 적절치 않은 문장이 되므로, 당연논항에 대한 함축은 고정함축이 되므로 대괄호가 없�지면서 그대로 투사되어 결과 상태의 사건 e_2 가 고정된다. 따라서 전체 사건구조는 e_1 과 e_2 로 구성된 복합 사건구조 e 가 된다.

- (29) a. #Alice baked the potato completely in 20 minutes, but the potato wasn't completely baked.
 b. Alice baked the potato in 20 minutes, but not complet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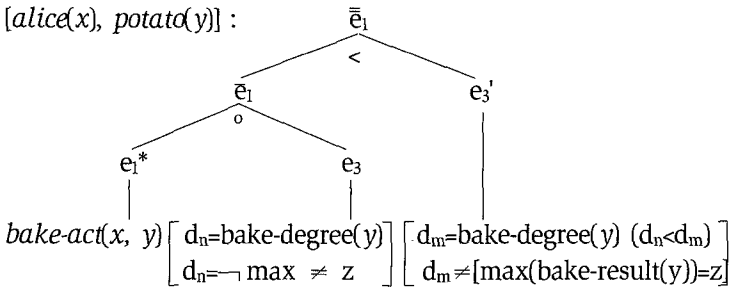
한편 (29b)처럼 명시적으로 부정할 경우나, (27b)와 같이 기간 부사구 for 20 minutes와 같이 쓰일 경우 척도상의 최대치에 대한 당연논항 값은 취소된다.⁶⁾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양분대립이 성립하지 않아 사건지속 구조 원리에 따라 단순한 행위동사의 사건이 지속되는 단순 사건구조로 보고자 한다.

6) 익명의 평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토박이의 직관에도 차이가 있다.

(i) ?엘리스는 20분만에 그 감자를 구웠지만, 완전히 다 구운 것은 아니다.

익명의 평자는 ‘이 문장이 과연 낯잡은가 하고 반문하는 화자들이 있다. 다 구운게 아니라면 20분만에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가 뭔지 모를 상황이 되어 일관적이지 못하게 느껴진다. 최소한 먹을 만하게 구워진 상태를 뜻하지 않겠는가? 물론 창조 동사만큼의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함의에 가깝게 느끼는 것이 직관인 사람이 많아 보인다. 애매성(vagueness)이 개입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여 ‘취소 가능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최대치에 대한 당연 논항값을 우선으로 하여 완성동사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고, 단지 Hay, Kennedy and Levin (1999)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취소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았다.

(30) a. [alice(x), potato(y)] :



이 경우에도 증점행위 사건 당시의 부대상황인 e_3 는 증점행위 사건 e_1 의 영향권 안에 있으므로 변화가 일어난다. 단 감자의 구워진 정도가 d_n 에서 그 보다 임의의 정도가 더 구워진 d_m 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28)의 경우와 달리 당연논항으로 설정한 최대치 값 z 는 취소되고, 대신 감자가 구워진 결과는 $d_m \neq [\max(\text{bake-result}(y))=z]$ 로 기술한다. 즉 최대치 값이 아니었는데, 여전히 최대치 값이 아니므로 양분대립에 의한 상태변화의 문이 열리지 못하고 지속된다. 그 후의 상태변화 상황도 그대로 부대상황의 연속인 e_3' 가 된다. 따라서 증점행위 사건 e_1 과 행위 사건 당시의 상황인 e_3 가 합쳐 e_1 이 되었듯이, 전체사건도 e_1 이 확대된(projected) \bar{e}_1 으로 정의한다. 즉 완결성을 보이지 못하고, 증점인 행위사건 e_1 과 그 부대상황 e_3 가 e_3' 로 변하고 있는 상태변화의 전이과정으로 구성된 단순 상태변화의 행위동사의 사건구조이다. 따라서 동사 bake의 어휘 의미구조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7)

7)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사건구조의 미명세원리로 논리적 다의성을 설명한다. 즉 사건구조가 명시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의 사건구조를 지닌 경우로 하나의 의미이지만, 미명세되어 있을 경우 문맥에 따라(또는 여러 경우의 수로) 생성적으로 실현되어 논리적 다의성을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구조의 미명세원리를 응용하여 생성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bake는 한 순간에 일어나는 순간 동작동사(punctual verb)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 진행되어 결과가 있는 동사이다. 이때 <는 시간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생성어휘부 표기방법으로 e_1 당시의 상태는 e_3 이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하는 상태는 e_3' 으로 표기한다. 전이과정(transition process)이 $E3(=e_3 < e_3')$ 이고 완결성이 있는 결과 상태가 $E2(=e_2)$ 이다. 이때 결과물이 명시적으로 부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어휘의미상 사건구조가 하나로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구조상에 미명세원리로 $E3/E2$ 로 표기하여 선택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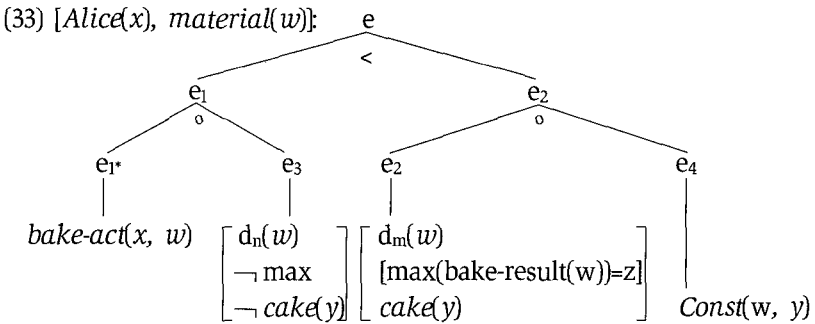
(31)	bake EVENTSTR =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20px;"> <tr> <td style="padding-right: 10px;">$E_1 = e_1 =$</td> <td>process₁ (causation)</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E_3 / E_2 = e_3 < e'_3$</td> <td>(transition process₃)</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td> <td>+ e₂ (result state₂)</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HEAD =$</td> <td>e_1</td> </tr> </table>	$E_1 = e_1 =$	process₁ (causation)	$E_3 / E_2 = e_3 < e'_3$	(transition process₃)		+ e₂ (result state₂)	$HEAD =$	e_1				
$E_1 = e_1 =$	process₁ (causation)												
$E_3 / E_2 = e_3 < e'_3$	(transition process₃)												
	+ e₂ (result state₂)												
$HEAD =$	e_1												
	ARGSTR =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20px;"> <tr> <td style="padding-right: 10px;">$ARG_1 = x:$</td> <td>animate_ind</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td> <td>FORMAL = physobj</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ARG_2 = y:$</td> <td>mass</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td> <td>FORMAL = physobj</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td> <td>QUALIA = FORMAL = Have(e₃, y, d_n)</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D-ARG_1 = z:$</td> <td>Max (bake-result (y))</td> </tr> </table>	$ARG_1 = x:$	animate_ind		FORMAL = physobj	$ARG_2 = y:$	mass		FORMAL = physobj		QUALIA = FORMAL = Have(e₃, y, d_n)	$D-ARG_1 = z:$	Max (bake-result (y))
$ARG_1 = x:$	animate_ind												
	FORMAL = physobj												
$ARG_2 = y:$	mass												
	FORMAL = physobj												
	QUALIA = FORMAL = Have(e₃, y, d_n)												
$D-ARG_1 = z:$	Max (bake-result (y))												
	QUALIA =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20px;"> <tr> <td colspan="2">state-change-lcp</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AGENTIVE =$</td> <td>bake_act (e₁, x, y)</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TELIC =$</td> <td>Increase (e'₃, y, d_m) [= bake-result(y) (e₂, z)]</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10px;">[$FORMAL =$</td> <td>bake-result (y) (e₂, z)]</td> </tr> </table>	state-change-lcp		$AGENTIVE =$	bake_act (e₁, x, y)	$TELIC =$	Increase (e'₃, y, d_m) [= bake-result(y) (e₂, z)]	[$FORMAL =$	bake-result (y) (e₂, z)]				
state-change-lcp													
$AGENTIVE =$	bake_act (e₁, x, y)												
$TELIC =$	Increase (e'₃, y, d_m) [= bake-result(y) (e₂, z)]												
[$FORMAL =$	bake-result (y) (e₂, z)]												

동사 *bake*가 나타내는 사건구조는 굽는 행위인 과정 e_1 으로 표시되며, 당연히 중점도 사역적인 행위과정 e_1 에 있다. 이때 전이사건은 상태변화 과정 e'_3 와 그 결과의 상태 e_2 로 표시된다. 단 결과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때는 E_2 가 되나, 취소될 경우는 상태변화과정 $e_3 < e'_3$ 만 남게 되어 E_3 가 되는 것으로 E_3 / E_2 로 표시한다. 논항구조의 필수논항은 두 개로, ARG_1 은 생명이 있는 개체로, 형상역은 물리적 물체이다. ARG_2 는 물질(mass)로, 특질구조의 형상역은 물질 y 의 구워진 정도가 d_n 이라는 e_3 로 표시한다. 이때 이정민·김현주(2000)처럼 *bake* 동사를 유한척도 술어로 보고, 물질 y 가 구워진 결과 척도상의 최대치(maximum) z 가 된다는 것을 술어 *bake*에 의해 도입되는 당연논항 $D-ARG_1$ 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결과 상태사건 e_2 는 상태변화의 특질구조속에서 물질 y 의 구워진 정도가 d_m 으로 증가된다는 상태변화의 전이사건 e'_3 와 동시에 구워진 결과 척도상의 최대치 z 가 된다는 목적을 나타내는 기능역(TELIC)으로도 표시되고, 또 물질 y 의 구워진 결과 척도상의 최대치 z 가 된다는 형상역(FOMAL)으로도 표시되므로 완결성에 대한 함축을 자연스럽게 나타낸다. 단 척도상의 최대치에 대한 당연논항 z 의 의미정보는 통사적인 명시성(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기간 부가어 또는 대략적인 정도를 표시하는 부사들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여 대괄호로 표시한다. 취소될 때에는 상태변화의 특질구조속에서 물질 y 의 구워진 정도가 d_m 으로 증가된다는 상태변화의 전이사건 e'_3 만 남게 되어 전체적으로 중점사건인 과정 e_1 과 그 부대상황인 상태변화과정으로 e_3 가 e'_3 로 변한다는 전이과정으로 구성된다. 즉 당연논항의 의미정보가 취소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술어의 완결성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어휘 의미구조로도 잘 나타낼 수 있다.

한편 동사 *bake*가 다음처럼 창조동사의 의미로 쓰인 경우 앞에서 살펴 본

Pustejovsky(1995)처럼 공동-합성이라는 생성기체에 의해 설명하는데 그에 대한 사건구조는 다음처럼 본다.

- (32) a. Alice baked the cake in an hour.
- b. ??Alice baked the cake in an hour, but not completely.
- c. #Alice baked the cake completely in an minutes, but the cake wasn't completely baked.



개체 x가 Alice라는 것은 같지만, 목적어가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물 케이크이므로 공동-합성원리에 따라 케익을 굽기 위한 재료(material)로 개체 w는 통사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논항으로 먼저 기술한다. 이때 상태변화의 의미로 쓰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료 w의 구워진 정도가 d_m 으로 증가되며 동시에 구워진 결과 척도상의 최대치 z가 되어 양분대립이 성립하고, 또 행위사건 당시에는 인공물 케익이 없었는데, 그 후 인공물 케익이 만들어졌다는 상태도 양분대립이 성립하므로 상태변화의 문이 열려 그 후의 결과상태 e_2 로 변한다. 전체적으로 e_1 과 e_2 로 구성된 복합사건구조 e가 된다. 또 (32b)가 케익이 완전히 구워지지 않아 덜 구워진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로 어색하기는 하지만 받아들여진다면 구워진 척도상의 최대치에 대한 당연논항이 취소되어도 인공물 케익이 없었는데, 그 후 덜 구워진 인공물 케익이 만들어졌다는 양분대립이 성립하여 완성동사의 상적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동사 bake의 다의성에 대하여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에 입각하여 창조동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완결성 교체현상에 따른 논리적 다의성을 일관성 있게 Pustejovsky(2000)의 양분대립(binary opposition)과 사건구조를 응용하여 어휘 의미구조를 수정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

였다. 2장에서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이론에서는 창조동사의 의미로 쓰이는 동사 *bake*의 논리적 다의성을 공동합성과 같은 생성기제로 잘 설명하고 있으나, 상태변화 동사의 의미로 쓰인 경우 완결성 교체현상에 대한 설명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3장에서 이정민·김현주(2000)는 완결성 교체현상을 척도상의 최대 값을 당연논항으로 설정하여 잘 설명하고 있으나, 사건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4장에서는 Pustejovsky(2000)의 양분대립과 사건구조를 근거로, 이정민·김현주(2000)에서 제안한 척도상의 최대치를 당연논항으로 설정하여, 양분대립에 의해 새로운 결과상태의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어휘 의미구조를 수정하였다. 즉 완결성을 보이는 경우 중점인 행위사건과 양분대립에 따른 완결성을 지닌 결과의 상태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 사건구조를 지닌 것으로 설명하였다. 반면 당연논항으로 설정한 척도상의 최대치가 명시적으로 취소되는 경우는 결과로 전이되는 과정이 양분대립을 이루지 못하여 사건지속 구조(Event Persistence Structure)에 따라 중점인 행위사건이 단순히 연속되고 있는 단순 사건구조를 지닌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완결성 교체현상을 복합 사건구조와 단순 사건구조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행위동사나 완성동사와 같은 전통적인 상적 분류에 따른 동사분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구조에 따른 어휘 의미구조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학. (2002). 완결성 교체현상과 사건구조. *영어학 2-2*, (한국영어학회) 161-183.
- 김윤신·이정민·강범모·남승호. (2000). 한국어 피동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 실현. *인지과학 11-1*, (한국인지과학회) 25-32.
- 김현주·남승호·이정민. (1999). 한국어 창조동사의 어휘의미구조.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 이정민. (1999). ‘-에’와 ‘에서’의 (통사)의미 구조: 생성어휘부이론적 접근. *오늘의 문법: 우리를 어디로(이홍배 교수 회갑기념 논총)*. 한신문화사. 563-576.
- 이정민. (2000). 상태변화 및 창조동사의 의미구조(논항 및 상).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한림과학원 총서 74. 소화출판사. 서울. 113-183.
- 이정민·강범모·남승호. (1998). 한국어 술어의 어휘의미에 대한 생성적 연구방법. *인지과학, 9-3*, 한국인지과학회.
- 이정민·김현주. (2000). 한국어 술어의 상적 완결성과 어휘의미구조. *한국언어정보학회 월례발표회*. 서울.
- 이정민·김영화·강범모·남승호·이하규 공저. (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한림과학원 총서 74. 소화출판사. 서울.
- Dowty, 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Dowty, D. R.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7-619.
-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y, Jen, Chris. Kennedy and Beth Levin. (1999) Scalar Structure Underlies Telicity in Degree Achievements, *SALT* 9.
- Kennedy, C. (1997). *Projecting the Adjective: The Syntax and Semantics of Gradability and Comparison*, Doctoral dissertation, UCSC.
- Kennedy, Chris and Louise McNally. (1999) From Event Scales to Adjectival Scales: Degree Modification in Deverbal Adjectives. *SALT* 9.
- Kim, Hyunjoo, S. Nam, and C. Lee (1999) "Korean Creation Verbs and Lexical-Semantic Structure," *Proceed's of the Korean Society for Cognitive Science Spring Conference*.
-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The MIT Press, Cambridge.
- Pustejovsky, J. (2000). "Events and the Semantics of Opposition",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CSLI Publications.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김 경 학

445-743

경기도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자우편 : khkim@suwon.ac.kr

접수일자 : 2004. 5. 13

수정본 접수 : 2004. 7. 16

게재결정 : 2004. 7. 27